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振替京城一九一番 / 電話光化門(長) 一九一番, 一八七八番

社說

繭價基準協定
—生產費를基準하라—

一

朝鮮에이서서 繭價를 決定하는方法은 總督府에서 各道主任官, 製絲協會側을모아서 値基를協定發表하는바 그中心이되는것은 原料인繭의 生產費와低에잇지안코 製品인 生絲를만드는製絲家의 加工賃이 先決問題가된다. 이것을 値基라하는데 値基가協定되면 橫濱生絲市勢에서値基를 除하고 그남어지를 가지고 掛目을 算出하야 繭價를 決定케된다. 今年春繭値基協定도 지난一日에 値基를 二百九十圓 (內地의倍以上)으로 引上하고 掛目은 中心絲價一千百七十圓을 基準하야 五十五掛로 決定發表되엇다. 値基는 昨年春繭에比하야 三十八圓(一割五分强)의 引上이며 基準掛目五十五掛는 昨年基準二十八掛五(中心絲價七百圓)에 比하야 二十六掛五(九割三分)의 昂騰에當한다.

二

內地에서 繭價의 標準이되는것은 靜岡縣沼津, 濱松의初取引으로서 祝賀氣分속에 시작되어高價로되는것이 普通이고 이에이어서 各地에서 初取引과當時의 絲價를基礎로 繭市勢를세우는바 內地서는 朝鮮에서와가티 製絲家의加工賃이 先決問題가되지안코 養蠶家의主張이 主로되며購繭하는 製絲家의 立場은從으로된다. 內地의春繭은 七十九掛로 十一圓高値를突破하야 十五年만의 高價이오 昨年의倍額에 達하야 養蠶家는 繭景氣를 謳歌코잇스나 製絲家는 繭高, 製品低로採算이맞지안는다하야 悲鳴을올리고 잇음에反하야 朝鮮內의 製絲家는 이번協定에잇서 値基引上으로 大體滿足하는모양이다. 卽內地서는 內外日本國在荷減, 春繭減收豫想等으로 生絲가一千三百圓臺를 突破하는好況을따라 養蠶家의 態度가 頑强하야 이가튼 高價를보힘에反하야 製絲家側으로서는 製絲加工賃을百八十圓으로친다드래도 絲價에比하야 顯著한逆鞘가될것으로 購買付를躊躇코잇다한다. 繭價가 製絲家의 苦痛이되도록 高價인것도 問題이오 養蠶家에게 損이나도록 低價이어서도 안될것임은 다시 말할것도업는일로 그어느便으로던지 偏치말어야할것이다.

三

靜岡縣蠶絲課는 繭生產費를 貫當五圓五十七錢으로 發表하얏는데 朝鮮서는 正確한調査의 發表가업고 昭和十一年의 二等繭一貫生產費를 二圓六十錢으로잡고 今年春繭에 對하야서는 그二割增인 三圓二十錢으로, 推算해가지고 이번協定에 參考한모양갓다. 靜岡縣서는 昨年보다 一割七分高이엇는데 朝鮮서는三年前의 二割增으로 친것이라거나 數字의 正確性을 信賴키어려운것이잇다. 朝鮮서는 大正十四年에 產繭百萬石增收計畫을 樹立한以來 今年度로써 終了되고 新增產計畫을 세울이때에잇서 繭價는 內地와가티 農家經濟에 影響함으로 農家를爲하야 慶賀할일이나 農家의收入은 못되드래도 當局의 推算에依하면 優等繭貫當七圓十五錢에 對하야 三圓의 純收入은되리라하니 繭增產獎行上 農家經濟上 多幸라아니할수업다. 그러나 生絲는 重要輸出品으로 外貨獲得上 生絲原料인 繭價도統制가 必要한일이다. 繭價는커녕 絲價安定도 別無對策인 現象으로서 一千圓 乃至 一千三百圓을 一週 現絲價로 치고 現在의 標準價入價七百八十圓을 一千圓程度로 引上하는 程度에그처 裏經營收益을 보아가지고 根本策을 세우리라 하지만은 內外地繭 勿論하고 繭價에 對하여서는 水繭生產增產을 圖하고 繰出增產을 確保하며 業家의 經營을 安定시키려면 繭生產費를 基礎으로한 安定的 統制가 絕對必要한일이라아니할수업다. 現行 朝鮮의 繭價決定方法가튼것은 製絲家의 利害에 擁護하는 一方的算出이니 이것은 하로바삐 是正되기를 바란다.

援蔣機構撲滅의烽火

對支同志會中心으로 排擊有志大會開催

十二日에國民大會開催決定

三國干涉

【東京電話同盟】第三國의援蔣行爲를排擊하라고 對支同志會에서는 三日後一時로부터 日比谷精養軒에서三國干涉排擊有志大會를開催하고 貴族院議員 大竹貫一、代議士山道襄一、菊地中將、澁左少佐 其他黑龍會、愛國社 生產黨、愛國學生聯盟、國體擁護聯盟 諸團體에 屬하는 約八百名이 會合하야 對支同志會의 葛生能久氏가 司會者로서 먼저國歌齊唱 出征兵士에對하야 感謝默禱를드리고 愛國社社長岩田愛之助氏의司會辭가잇슨後 座長에大竹氏를 推薦하여 興亞建設을妨害하는 一切의援蔣機構의撲滅을期함 以下四項目의決議宣言을하여 午後二時半 副島義一、大山鬼二郎兩法學博士 東平使藏中將外九名이 首相以下陸海外各相을訪問 當局을鞭撻하엿다 一方會場에서는 元獨逸大使本多熊太郞、寺田稻次郞兩氏가 英米佛三國干涉排擊演說을行하여 크게氣勢를올리고 午後七時半 閉會하엿다 그런데 同會에서는 오는十二日正午부터 國技館에서 今日의經過報告其他三國干涉排擊國民大會를開催할터이다

後藤元內相의熱心

【東京電話同盟】大日本防空協會의 理事長으로 就任한 元內務大臣 後藤文夫氏는 協會의事務所가 內務省內에 잇스므로 恰似히 職에 돌아간것가티 每朝午前九時에 登廳하여 午後四時의 退廳時까지 終日熱心히執務하고잇서 內務大臣이 二人이 잇는것가티되어 給仕에게 「大臣이 돌아갓는가」고 무르면 「木戶氏입니까 後藤氏입니까」라는 거지말가튼 이야기가잇다

全拓殖機關網羅 一大懇談會結成

【東京電話同盟】我國力의 進展에伴하야 國策的使命을가진 拓殖關係事業會社數는 累增의 一途를밟어 滿鮮을爲始 東洋拓殖、臺灣拓殖、朝鮮拓殖及滿洲拓殖等이잇서 最近에는 昨年十一月에 設立된 我大陸經濟開發機關인北支開發會社及 中支振興會社가잇서 正金銀行、朝鮮銀行、朝鮮殖產、臺灣銀行을 包含한다면 이十指를 屈하게되는바 從來此等拓殖關係銀行은 各其營業地域이 다르며 또 事業分野도 多少相違되는 關係上 意思疏通機關이 업스며 現在 滿洲關係方面에는 滿鐵을 中心으로 東拓、正金鮮銀等에 依하여 相互事務打合機關인 滿水會가 잇고 또南洋方面에는 東拓、臺拓及南拓의 三社에 依하여 三光會가組織되어잇는데 不過하다 最近에는 事業의 複雜化及 營業地域의 擴大에 따라 相互事務連絡上 此等各特殊關係會社間에 全般的協議機關을 結成할 必要가 痛感되게되어 特히 北支開發會社에서는 그統制指揮가 多方面에 亘한關係上 特히 그必要를認하고 率先하여 近近 他拓殖事業會社를 慫慂拓殖關係機關을 網羅하는 一大懇談會結成에 進出키로되엇다 그리고 此種機關의 組織에 對하야는 東拓을爲始各特殊會社가 모두贊意를 表하고잇스므로 드디어不遠具體化할것으로 보인다

元宮城控訴院長 淸水一郞氏逝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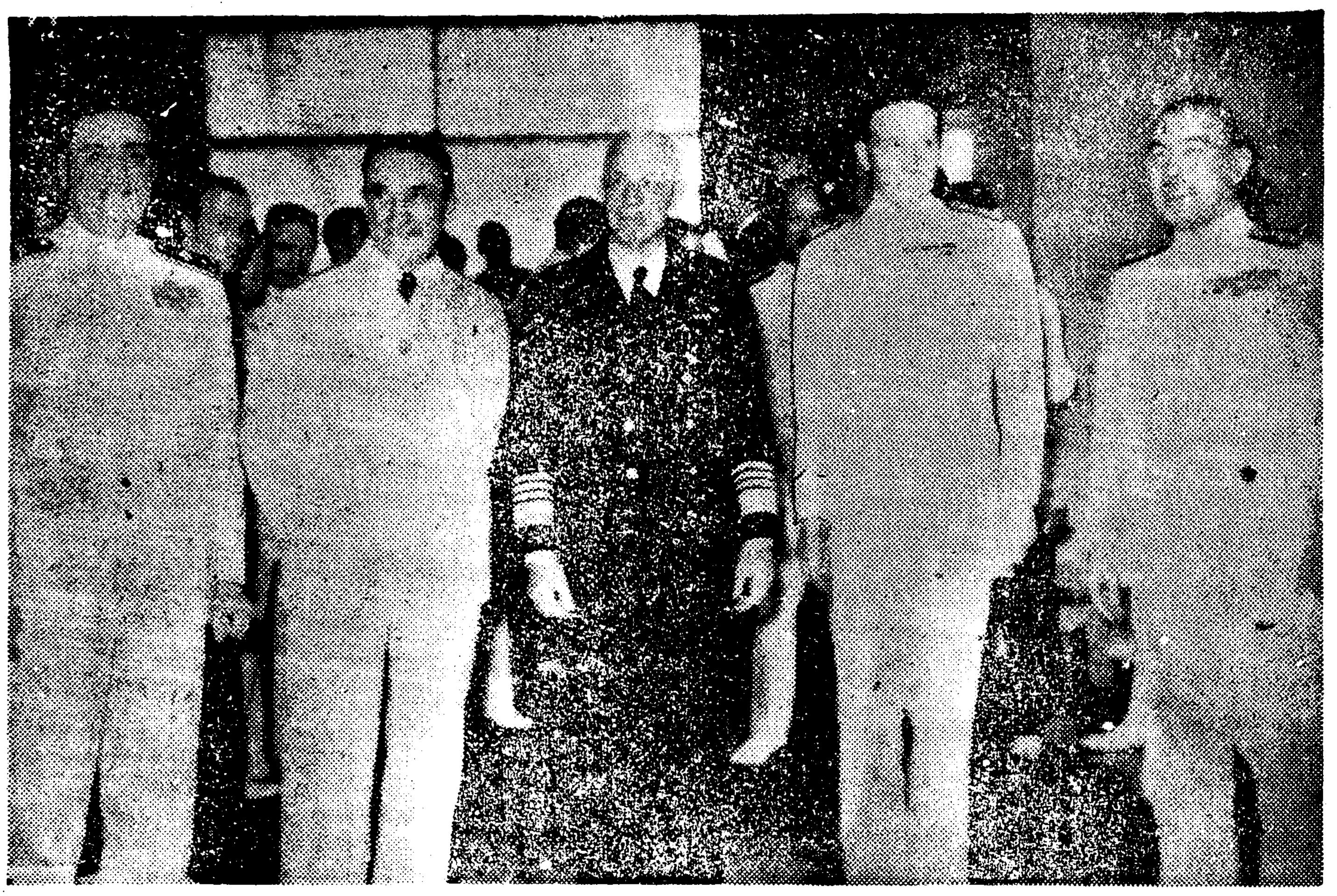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元前宮城控訴院長淸水一郞氏는 지난五月以來幽門閉塞症으로 療養中이던바 二日午後九時四十六分東京淀橋區西大久保自宅에서 逝去하엿는데享年八十五歲이다

河野大佐永眠

【○○電話同盟】南支作戰에 武勳을세운 河野茂技砲兵中佐(高知縣出身)는 病을어더 療養中이든바 二日午後八時 永眠하는同時에 大佐로 榮進하엿다 河野大佐는 바이야스灣 海南島敵前上陸에 赫赫한武勳을 세운勇將이다

日高經濟部長 北支棄難視察談

【門司電話同盟】三週間豫定으로 北支、蒙疆을 視察中이던 興亞院經濟部長日高信六郞氏는 三日朝天津으로부터 門司에寄港하는 原田丸으로 歸來、午前九時二十分下關發 東京으로 向하엿는데同氏는 如左히 말하엿다 治安工作도 實質的으로 進涉되어 天津으로부터의 運河도 各地로 通하여 東部의 棉花其他物資가 續續集中되는 一方大衆을 비롯하여 石炭[illegible]地가 次次 發見되고 [illegible] 支那大衆에 日支經濟提携의소리가 일어나서 그機運은 濃厚하여 [illegible] 要人과 [illegible] 따라 日支經濟提携가 [illegible] 바야흐로 자리가 잡히엇다 大衆의 生活必需品을 日本으로부터 [illegible] 地盤이 구더진 [illegible]의 購買力을 增加시키고 信用을 增大시키려는데도 必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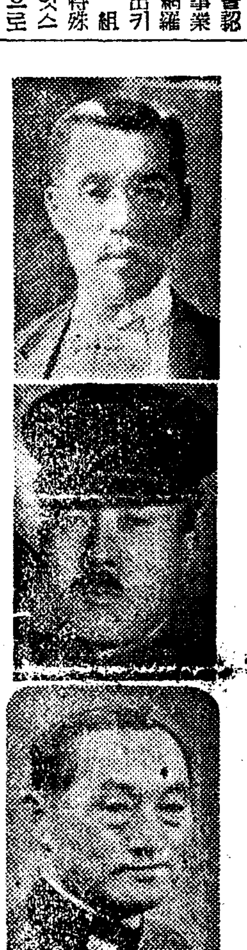


及川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 伊英米佛四國海軍最高指揮官 招待 ……(一日上海브로드웨이·만손에서)……

首陸海三相會議서

對歐策具體化大綱決定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은 三日午前 有田外相과會見하고 午後零時四十分 板垣陸相을 首相官邸에 招致하여 外相과 協議한對歐策具體化의大綱을 提示協議한結果 午後二時十分 山本陸軍省軍務課長代理及西浦軍事課員을 招致하여 專門的意見을 求한後 同三時三十五分 米內海相이 [illegible] 首相、陸相、海相이 鼎座하여 最後의 [illegible]한後 午後四時 海軍側으로부터 岡軍務局第一課長을 招致하여 首相을 中心으로 陸軍側은 板垣陸相以下町尻山本、西浦兩中佐、海軍側은 米內海相及岡大佐參集檢討를 干先마친後 平沼首相은 同四時四十五分 먼저 首相官邸를 退出하여 週末靜養次自動車로 武州金澤에 赴하엿다 陸海兩相은 남어서 太田書記官長을 加하여 今後의 方針을 協議한結果 陸海軍兩當局은 各各右大綱을 가지고 도라가서 審議를行한後 그結果를 太田翰長에게 報告하기로하고 同六時二十五分協議를終了 陸海兩相도함께 首相官邸를 退出하엿다 따라 太田翰長은 陸海軍兩當局으로부터 報告가잇는대로 곳 金澤에靜養中인 平沼首相에게 電話로써 通達하기로되엿다 이리하여 平沼首相은 五日歸京한後 有田外相、石渡藏相兩相에 報告한後 宮中의 御形便을 살피어 參內奏上할터로이에 去月二十日五相會議에서 決定된 帝國政府의 對歐策具體化에關한大綱은 名實함께아주 決定된셈이다 (寫眞은 平沼首相、板垣陸相、米內海相)



再次不法越境時엔 徹底的膺懲決意

할하渡河點의外蒙兵을嚴重監視

【할하河畔에서 三日同盟特派員發】할하의滿蒙國境을 警備하는 日本軍은 外蒙兵의動靜을 嚴重警戒中인데 外蒙側은 旣報한바와가티 蘇聯技術大隊機械化部隊外에 타무스크方面에 相當有力한機化部隊를 動員한 模樣이다 二日夜에는 노몬한高地附近의 할하河渡河點에 一部斥候가 出沒하고잇슬뿐으로 아직越境行爲는 하지안흐나 外蒙兵이 今後도行動을 開始하리라는것이 豫想되므로 日滿側은 冷靜히 事態를注視하며 再度侵入하면 곳徹底的膺懲을加하려는 決意밑에 [illegible] 警備陣을 펴고잇다

蘇機擊墜現場視察記

【滿蒙國境에서三日同盟特派員發】我陸의 荒鷲에게 擊墜된 外蒙機가 발사갈高地에 떠러진다는報에 二日記者는 곳現場에달려갓다 地點은敵의 退路를遮斷할 目的으로 攻擊된할하河畔地點의直前으로 할하高地後線의 砂地이다 機體는蘇聯에서자랑하는 이五十五型 戰鬪機인듯하나 我銃彈으로發火하여 原型을認定할수도 어렵을만큼 燒失되어 操縱將校도 蘇聯人인듯하나 새까마케타서 明瞭하게 識別할수 업섯다 그러나 身長等으로보아 操縱士는蘇聯人으로 推定된다 그리고이地點附近에서 勇戰名譽의 戰死를遂한 多數한 戰友의 死體收容을爲하여 同行한兵士는 附近에잇던 [illegible] 꺽어 [illegible] 「이러케되면 敵이라도可憐하다」라고 [illegible] 砂丘의頂上에서서보니 [illegible] 이잇는곳에도 蘇聯機의殘骸가 [illegible] 어잇서當時의 激戰과 [illegible]의 活躍이 새삼스러히 생각키운다 同時에 無意味한戰爭을 [illegible] 原의 白骨로化한 蘇聯飛行士의 運命이 어쩐지 불상하게 생각된다

蘇聯軍의暴虐相

【○○三日發同盟】노몬한事件에서 蘇聯外蒙古兩軍은 日滿側의 [illegible] 外로 退却하엿는데 意外에도 蘇聯軍의 [illegible] 말에依하면 [illegible] 업는 外蒙兵을 [illegible] 아래를 [illegible] 逃走할수업도록 하여 日滿軍의 攻擊에 防戰케한것이 判明되어 蘇聯軍이 戰線에서는 外蒙軍을 最前線에 세우고 外蒙軍으로하여곰 [illegible] 無慘히도 國境紛爭의 犧牲으로 한것이 暴露되엇다

蔣、禁煙記念式典서 阿片害毒을强調

【香港三日發同盟】淸朝의 林則徐가 珠江河畔虎門에서 英人이 輸入한 阿片을태워버린事件은 阿片戰爭의 發端이된것으로 有名하거니와 三日은 그百九年記念日에 當하므로 國府에서는 重慶에서 禁煙記念式典을 擧行하엿다 重慶市黨部主催로 盛大한式이 擧行되어 蔣介石도 例에依하여 라디오演說로 阿片의害毒을 말하여 抗日精神强化를 絕叫하엿다 蔣의演說要旨는 左와如하다 林則徐先生은 阿片의 害毒으로 滅亡하려던 我國을 敢然히 救出한 大恩人이다 爾來百年 阿片吸飮의 惡習은 依然끄치지안코 이사이에 日本은明治維新을 斷行하고 日淸日露 世界三大戰을 經하여 國力을 膨脹시키고 드디어이제는 滿洲는勿論 北支中支를畫占하고잇다 我等은 抗戰에依하지안흐면 國家를救할수업다 徹底的으로 抗戰하고 最後의勝利를어드려면 全國民을軍事하여 國民精神總動員에 合力하지안흐면안된다 阿片吸飮을 徹底的으로 排擊하는것은 精神總動員의 가장重大한 一項目이다 阿片에 썩어빠진 身體로서는 我等은 어떠케抗戰을 徹底히할수잇스며 最後의勝利를 得할수잇는가 實로阿片驅逐運動의必要는 今日가티重大한때는업다

淸水喜重中將 長崎着東京向發

【長崎電話同盟】約一個年에 亘하야 中南支戰線에서 赫赫한武勳을세운 淸水喜重中將은 三日午後一時二十分 長崎入港의 上海丸으로 凱旋 [illegible] 初夏의 故國에 第一步를 印하얏다 午後二時四十五分發 急行으로 一路東上하얏는데 同中將은 車窓에서 [illegible] 「兵隊는 참으로 勇敢하다 實로强하다 [illegible]」고 먼저 將兵에의 感謝의 말을 表한後 아래와가티 말하엿다 如何한 困苦에나 [illegible] 오직 一途大君을 爲하야 [illegible] 兵隊에의 感謝로 가슴은 가득차잇다 戰死한 貴한 部下將兵의 遺族으로부터 만흔書信을 바덧는데 特히 이들 男子의 母와 遺族의 婦人들에게서 [illegible] 愛國의 至情에 소사오르는 [illegible] 切의情에는 눈물지우지 안흘수업섯다 「銃後의 婦人은 强하다」고 나는 곰곰히 생각하엿다 이 銃後婦人의 굿세미야말로 이 事變에 큰成果를 가져온 한 原因이라고 생각한다 部下들과 헤어지는것은 쓸쓸한일이엇스나 이것도 軍人의 運命이다

山西共產軍暴政에 住民의反共機運濃化

【○○電話同盟】[illegible] 共產軍은 駐屯各地에서 軍糧을 課하며 掠奪的買入을 하는等 暴政을 하기시작하엿스므로 最近그들의 金城湯池이던 中部山西省에서는 住民間에 反共的機運이 擡頭하여 人民의 共產軍惡憎은 極度로 濃化하엿다 卽最近의 中部山西省、大谷、祁縣、平遙、介休、汾陽、文水、交城、淸源等各縣의 一般狀況을綜合하면 共產軍은 駐屯各地에서 住民을强制하여 [illegible] 金錢又는人力을 내도록할뿐만아니라 貧民에對하여는 男子는苦力으로 女子는被服工으로서 傭用하는 外에 必要에應하여 金錢을支出케한다 大谷、平遙、汾陽、祁縣等에서는 이外에 今年度地租로서 一圓四、五十錢을 徵收하고 다시 [illegible] 住民은 事變物價騰貴에依한 [illegible] 極度의生活難에 빠저 共產黨嫌惡의 機運은 漸次濃厚되고잇다

國民黨元首 蕭佛成逝去

【香港三日發同盟】國民黨元老로서 일지기 西南政界의 重鎭이던 蕭佛成은 얼마전부터 健康이조치못하여 盤谷에서 療養中이던바 今月一日同地에서 逝去하엿다 享年七十 [illegible]

獨丁不可侵條約 丁抹側批准完了

【코펜하겐三日發同盟】丁抹上院은 二日에 지난三十一日獨政府와의間에 調印된獨丁不可侵條約을 滿場一致로承認하엿다 下院은 이미一日에 이를承認하엿스므로 不可侵條約의丁抹에서의 批准手續은正式으로 完了되엇다

臨時職員制濫用

樞府側에서警告

【東京發電】臨時職員設置制에依한官吏增員은事變으로事務繁忙한에따라最近各省에서增員되는傾向을나코잇는데目下樞府審査委員會에서審議中인商工省官制改正에依하여도 臨時職員을從前대로 相當數를包含하기로되엇스므로 一日의 同審査委員會에서 樞府側으로부터 右臨時職員의方法이 濫用되는 한 官吏增員은 不當하다는 見解를 披瀝하엿다 卽樞府側意見은 右臨時職員制에依하여 各省을 通하여 奏任、判任 五千九百三十四名의 多數에 達하며 商工省에서는 六百十名以上 [illegible] 多數를 헤아려 官制에 超過하는 臨時職員制라고는 하지만 그運用의 實際를보면 事實은 이를 恒久的制度의感이 잇는데 如斯한官制에 依치안는 官吏任用의 制度는 本來가不當한것이다 今回의 商工省機構改革에際하야서 當然히 이制度의存廢를 考慮할것이라는데 이에對하야 政府側은 同問題는商工省一個의 問題가아니요 各省을 通한것이므로 다른機會에考慮할것을 答辯하고잇스며 樞府의警告에對하야서는 法制局에서도 同意向을가지고잇는모양이므로 政府當面의行政機構改革問題에關聯하야 不遠臨時職員制의 改革도問題가될것이다

簡保契約現況

朝鮮簡易生命保險五月末現在契約高는二百十三萬二千五百件月額保險料百九十九萬三千八百圓保險金額三億八千八百七十二萬圓으로그內容은內地人四十三萬九千三百件月額保險料五十四萬二千六百圓保險金額九千九百六十二萬圓半島人百六十九萬三千二百件月額保險料百四十五萬一千二百圓保險金二億九千二百七十萬圓이다

辭令

(三日附發令)

趙義聞 徐相勛 朴重陽 韓相龍 申錫麟 朴相駿 金英鎭 李謙濟 柳[illegible] 韓圭復 朴容九 金明濬 高元勳 鄭僑源
總督府中樞院參議被仰付 勅任官으로써 待遇

鄭蘭敎 元悳常 李敬植 張稷相 張錫元 安鍾哲 崔志煥 李升雨 玄俊鎬 徐丙朝 李基燦 方義錫 曹秉相 孫在廈 池[illegible]烈 金昌洙 姜東曦 文鍾鉉 金信錫 徐炳杜 金漢錫 河駿睦 金慶鎬 閔丙德 金晉洙 洪致業 崔準集 朴曾陽 劉泰尙 南百裕 金定錫
總督府中樞院參議被仰付 奏任官으로써待遇

洪鍾國 總督府中樞院參議
張憲根 同

勅任官으로써待遇

渡部政德 朝鮮公立中學校敎諭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補晉州公立中學校敎諭

小田切充 任總督府鐵道局鐵道監

佐藤立一 朝鮮公立中學校敎諭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金東元氏(本社顧問)二日午後入京 國一館留宿

本社參觀 (三日)

▲瑞山支局主催金剛山探勝團二十五名(引率者申恒均氏)
▲禮山郡新岩小學校生徒六十八名(引率者望月政雄氏)
▲安州私立維新學校生徒六十七名(引率者李寬淳氏)
▲義州枇峴信成學校生徒六十六名(引率者金載梓氏)
▲禮山郡揷橋小學校生徒七十七名(引率者李正欣氏)

005141

皮膚病에卓効잇는温泉藥(專賣特許)
一ホウ一六 어느藥店에나잇습니다
プッハ一〇一六
數滴을浴槽에投入하면 크낙家庭에서温泉의즐거움을 數錢으로 一家總히爽快한 温泉을맛볼수가잇습니다 諸病의根源인體內에生하는 鬱血瘀血에 六一〇ハップ温泉에依하야 不知不識間에排泄하고 血行은 旺盛케되는 獨特한作用을發揮하므로 恒常一家는健康體로 病을모르는 温泉藥이라고어느家庭에서나 非常한好評을博하고잇습니다 또六一〇ハップ는 여러가지 皮膚病에도 그病根을殺虫하고 殺滅하는힘이强大하므로輕快하게 또 조금도刺戟업시속속快癒합니다 他品의到底히 依倣할수업는 六一〇ハップ獨有의藥効입니다 꼭試驗해주십시요
(가짜品에注意하십시오)
名古屋市西區 發賣元 六一〇ハップ本舗
價 1·00 2·30 3·50 6·00 ·35 / 小瓶 中瓶 大瓶 特大瓶 試用

高級 アイスケーキ機械
製氷·冷藏 牛乳處理用
冷凍機豫約販賣開始
돈버리王一夏의利益五千圓
型錄進呈
朝鮮冷凍工業所
本店 釜山府大倉通り (電話五六) / 支店 平壤府八千代町(電話四九四六)

眞玉石眼鏡 都散賣
慶北慶州邑本町通
慶州南石工場 主金在圭
(商報無代進呈)
本人은十五代間이나南石治石에精勵하엿습니다
◎注意◎ 在慶同業三店에一次式試用하여보신後其中信用本位인店으로注文하시되或來慶機會時는何店商品의積荷가第一位인지한번視察하여주소서
慶州南石工場은本工場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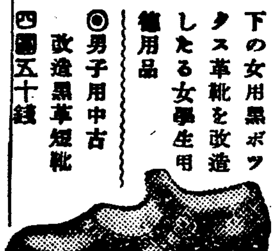
(時勢表進呈)
アミノサン도매
釜山府瀛州町 丸星商會
第一工場 釜山府瀛州町 / 第二工場 釜山府大新町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十番地ノ一
日本銀行代理店 / 日本勸業銀行代理店 / 朝鮮貯蓄銀行代理店
頭取 林繁藏 / 副頭取 渡邊彌幸
資本金六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九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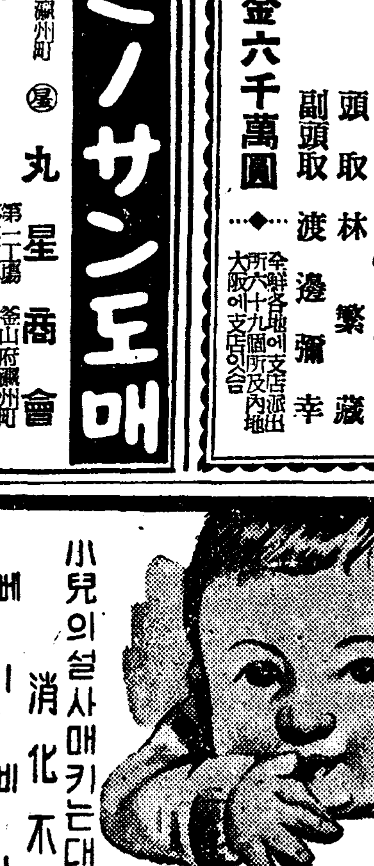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創立 明治三十二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頭取 [illegible] 專務取締役 井上正一 [illegible] 淸
支店 出張所 [illegible]

安產湯
各藥房에다잇소
天一藥房 [illegible] 電話三一三〇番



海軍省拂下品 訓練服と防水に中古靴
黑色防水布外套(黑厚ゴム引肩二重仕立) 一等品 六圓五十錢
本品は海軍省拂下の中古品にて極厚地生地に黑防水ゴム引寸法は大寸仕立
鐵道省拂下品 黑防水レンコート 一等品 四圓五十錢
青年團服ス·フ國防色セル A品 五圓六十錢
防護團服ス·フ國防色セル 一着 五圓五十錢
軍隊拂下改造編上靴(中古品) 本品は軍隊拂下の中古品を改造加工した丈夫向
陸軍茶利革編上靴改造品 最優品 六圓五十錢
布軍陸戰隊用黑茶靴上靴改造品 最優品 六圓五十錢
電氣局拂下品 女用黑革短靴(中古改造品) 三圓八十錢 本品は電氣局拂下の女用黑ボックス革靴を改造したる女學生用
男子用中古改造黑革短靴 四圓五十錢
米國製直輸入品!! 中古米國製中折帽子
ベロアー帽子 舶來純毛品 色…黑、茶、鼠 四圓九十錢
本品は米國より輸入したる中古舶來帽子をクリーニング加工し最新流行型に調製し大衆向高級品新品なれば三十圓の中古品
ソフトフアー帽子 色…黑、茶、鼠 四圓二十錢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直ちに代金引替小包で送ります ○不向の節は御取替又は返金御自由
名古屋市東區淸水町局前 御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 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一一番



ベ(베)ー(ー)ビ(비)ー(ー)散(산)
小兒의설사매키는대 消化不良
小兒의설사는 徐徐히굿치게하시요決코急히맥키게마시요그것은잘못된療法입니다
發賣元 京城 株式會社 新井藥房

書籍目錄 無代進呈
ありへガキ申込次第送呈す [illegible]
大阪市東淀川局區內 [illegible]
二十五年責任保證
堅固無比 無音輕快 品質優良 無障保證 廉價主義
本店에서多年苦心研究한結果舶來品以上의ミシン大王인ミゾリンミシン을製作販賣하엿음니다 [illegible]
手廻式 [illegible] 足踏三個油斗 [illegible]
一、代理店員은月給五十圓外販賣利益金全部를所得合
二、代理店募集에限定이有하오니速速問議하시옵소서
ミシン界大王 ミゾリンミシン 總發賣元
ミゾリンミシン商會
總營業所 平壤府本町十五番地 代表電話二五二六番 / 振替京城一五〇一〇番
工場 平壤府新陽里 電話四一五七番
原料工場 大阪府布施市 [illegible]
爭先申込하시요

衣裳文化의先驅로 獨自의境地를開拓

한때는奢侈한다고非難하던옷도지금은追從

海外에서激讚바든우리衣裳

女學生衣裳考現學 ⑤

新制服以前 梨專의新旧流行譜

옷이 사람의 날개라는 시인의말은 여자에게 있어서 그러하고 특히 피어오르는 젊은여인에게 있어서 알맞는말이다 이날개가 빈하자 아름다워때 옷은 몸을 가리우는 단순한 은폐(隱蔽)에서 아름다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것이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화학생들이 옷에서만 아니라 생각에까지 미(美)를 찾게된것은 이화의 의상문화상 특기할만한 일이다

좋은 옷의 색조에 대하여서는 오래동안 내려온 전통— 정진코 아담한 전통이 잇섯고 이것은 이대로 완전한 미임에 틀림업다 그러나 이것은 정적(靜的)의 미이엇고 새로운 시대의 젊은 여인들의 그릇(容)이 되지못하엿든것이다

이화가사과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옷감의 화려한 빛그대로가 아니라 이땅의 전설에 어울리면서도 새시대의 젊은이들의 경쾌한 기질에 맞는 색조를 연구하고 연구한결과를 곳 옷으로 지어입게되엿다 (이화의 색조는 그러므로 자기손을 대지안코 옷감을 입는 보통여인들의 의복과 색조화는 완연히 구별되고잇다)

◇

이가티 옷의색조가 아름다워지고 옷의세가 변하고 거다가 이화학생은 조선에서 가장 놀은 여자학부인 학인은 좋은 이가티 전파력이 강한 이유이나 또한그들이 사회에 나와 시작하엿다

이화의 옷은 그저화이화이 또한 것다 이화의 치마가 짧어지면서 저고리가 길어지자(오년전까지도 저고리는 길엇다(십 반없은 여인들의 저고리는 길어젓다 또 이화학생의 머리가 외출타기로 변하매(신여성편)다 는여인들도 이를 따라 바람을 타기를 그만두고 외출을 타기

그옷을 입은 사람이 흘고 어여러생은 사치한다는 평판이 난후것이다 그러나 옷감에 잇서서 이화는 비싼 비단을 않엇고 좋곡도 인조견을 엽지 않엇스며 옷의 옛색도 자기손으로 틀이었는 아조 겸손한 여성들인을 증명한다 부자를 욕하는것은 가난뱅이라고 이화의 옷을 비평하는사람도 이화의 옷에서가 경쾌하고 생각이 아름다움에는 어쩔수업서 차차 이를 따르게되엇다

[illegible]

昨日의"多辯府會"

總督府諮問案은任員選擧등살에審議도못해

府當局의期限切迫한召集에遺憾點이不無!

경성부회에대한 총독부자문안은 예외자고회 대단 의안을 상정할 부회를가진 이라 부의장선거를 에외치고회 이를 해서는 부의장선거가 잇섯스므로 부의장선거에만 노력하여 부회의의 의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다만 부의장선거만으로 끗이 나고 말엇다 ... 의 회의원사이에서 비난이 놉다

[illegible]

副議長에杉氏

常任議員內地人十名朝鮮人八名互選

四日(日曜)에도續行

夕刊一部既報=경성부회는 삼일오후三시 오십분 부의장선거에 들어가자 각파의 암약이 노골화하여저서 장내의 공기가 극도로긴장하여젓스므로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등의 요가잇스니 휴게를하자는 등의 가성원되어 만장의 방청자를전부내여좇고 간담회에 들어가 시간각파가 그동안의 암약을폭로하는데 논전을전개하기 한시 하엿다

간 세사십오분에야 겨우재개하여 투표한결과 석가키로 예상파가리 삼시총(杉市郎平)씨가 삼십사표로 당선되엇다 이어장사의원(庄司議員)의동의로 의사진행계로 상임의원선출한시간이상이 걸려 상임의원선거를 마첫슬때 벌서 다섯시반이되어 총독부자문안은 하나도 상정하지못한채 산회하엿다 자문안은 모다닷새(五日)까지 답신하도록 기한부가 되어잇는데 게로 사일은 일요일에 불구하고 오후二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되엿다

부의장선거결과와 상임위원은 다음과같다

副議長▲三四票 杉市郎平(當選)▲二九票 國友尙謙▲一票 石原憲一▲一票 曾我勉▲一票

常任委員=伊藤東作、上原鼓治、臺敬芽藏、石川俊道、內田錄五郞、野附勤一郞、不破三平、小坂貞雄、中島郷之助、武田知篤(以上內地人十名)

蘇完奎、韓相龍、李昇雨、車相鎬、金完光、朴勝斌、金思練、朴興明(以上朝鮮人八名)

慶州、慶山에大火

兩洞四十戶灰燼

불난원인은모두불작난에서

災民들의情狀可憐!

【慶州支局電】삼일오후에 경북경산군(慶山郡)과 경주군(慶州郡)에서큰불이낫다

이날 오후한시이십분에 경산군압량면 당음동(押梁面唐音洞)천덕룡(千德龍)(六○)씨의 집에서 불이나서 강한바람으로 말미암아 오동리에 퍼저서 이십팔호가 전소되고 일호는 반소되엇다 집들은모두 초가이며 사람은 상하지안헛스나 도야지와닭등 가축은 타죽으서이 적지안타 손해는 약일만삼천원가량된다 아이들이 솔가지를 재여논데서불작난을 하다가 불을 이르킨것이다 오동리 사람들이 불끄기에활동하엿스나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이 귀해서 좀처럼 불을잡을수업다가겨우오후다섯시에 잡게되엿다

또경주군 서면신평리 (西面新坪里)윤재원(尹在源)씨의집에서 도이날오후 두시반에 불이나서 서풍을맞나 동리집으로 건너서 십이호(서른두채)를 전부태우고 소방대와 동리사람들의 활동으로 오후세시반에 겨우불을 잡앗다 손해는 약만원가량 되며 사람은 상하지안헛다 여기도역시아이들의 불작난으로 불끄기게된것이며 물이업서서 불끄기에곤난하엿다

두곳의 회재를 당한사람들은 각기그곳 면소와경찰서에서 구조를하고 잇는중인데 모두정경이 가련하다

大金盜難

【平壤】평북 비현(枇峴)역전에서 재목상을하고잇는 김용제(金龍濟)(五○)씨는 삼일오후네시에 부내종로 회신배회점아페서 주머니에지니고잇던 돈사백팔십원을 일허버렷스므로 깜작놀라서 종로서에 신고하엿다

世界青年大會代表 笠井、李兩氏出發

전세계 기독교 청년대회에출석하려가는 입정보태랑(笠井保太郞)씨 이종선(李鍾銑)씨 전주산전박(畠中博)씨등 삼씨는 삼일오후세시에 경성역을 떠나는부산행급행렬차 『노조미』로 출발하엿다 (사진은 경성역에서)

寫眞 上은 全朝鮮씨름大會入場式、下는 白熱된競技光景

八道力士의角逐場

豪壯한肉彈突擊

本社後援全朝鮮씨름大會第一夜盛況裡進行

人氣의絕頂은今夜의決勝에!

씨름꾼의 거장들이 총동원하야 금년도 최고의패권을 결하는 제삼회 전조선씨름선사권대회 제일야는 작삼일 오후여덟시부터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상쾌한막을 열엇다 남북각지의 건아 구십여명의 씩씩한 용자와 오백천통을 자랑하는 조선고유의 씨름을 구경하려고 모혀드는 관중으로 삽시간에 만원을 이루엇다

저각이되자 팔도에서 모인맹장들이 단우에 나타나니 만장의박수와 환호속에 본사 운동부장 고봉오(高鳳梧)씨의 사회로 정중한 입장식이 열리어 궁성요배(宮城遙拜)가 잇섯고 대회회장 이극돈(李克魯)씨의 개회사와 선수대표를 대표하야 작년우승자 송병준(宋炳俊)군의선서가 잇섯스며 심판부장 김윤근(金潤根)씨로부터 경기진행에대한 주의선서가 잇슨후 중학부제일회전으로부터 경기의 막이열리어 박경기마다 백열전을 전개하여 만장을 극도로 열광케하엿다이리하여 이날은 중학부와 왼씨름의 제이회전까지 행하고 바른씨름은 일회전만을 마치엇는데 대회사일밤은 오후칠시부터각부의 흥미진진한 준준결승、준결승 결승전을 행할터인데 장안의 인끼는 본사강당의 씨름장으로 집중되고잇다

◇中學部

【第一回戰】

李慶俊(商修)2—0 崔炳鎬(中東)	石在億(普成)2—0 李敏英(徽新)	金貞烈(培材)2—1 金萬玖(徽新)
朴永弼(普成)2—0 申良雨(培材)	劉 陵(協實)2—0 朱丰錫(普成)	金東卿(中東)2—0 崔東燦(徽新)
劉 陵(協實)2—0 尹永七(普成)	李慶俊(商修)2—0 朴永弼(普成)	尹丙烈(培材)2—0 金炳邦(培材)
石在億(普成)2—0 金俊興(培材)	【第二回戰】	鄭基永(電氣)2—1 朱 錫(徽新)
李陵基(徽新)2—1 許 錫(普成)	朱 錫(徽新)2—0 鄭正鉉(中東)	
朱丰錫(徽新)2—0 金鳳奐(中東)		
金貞烈(培材)2—0 金虎鎭(普成)		
金萬玖(徽新)2—1 高永吉(中東)		
金東卿(中東)2—1 鄭東燮(普成)		
崔東燦(徽新)2—0 李采鳳(中東)		
高廷文(培材)2—0 金重其(普成)		
兪成煥(中東)2—0 朴 興(外語)		
黃錫振(永工)2—0 韓鳳鎬(徽新)		
金炳邦(培材)2—1 權海植(中東)		
鄭基永(電氣)2—0 崔達泳(普成)		

◇바른씨름部

【第一回戰】

李點龍(松坡)2—0 金鶴辰(德亭)、李鉉發(坡州)2—1 金鶴鎭(鐵原)、朴大根(京城)2—0 李東植(往十)、劉鳳鎭(往十)2—0 金彰秀(坡州)、申成伊(鐵原)2—1 李鳳燮(楊州)、金三文(京城)2—0 韓勝鎭(高陽)、金昌吉(鐵原)2—0 李在仁(楊州)、李興萬(鐵原)2—0 鄭鳳基(松坡)、朴鳳完(京城)2—0 尹貞根(楊州)、宋柱斌(高陽)2—0 林錫金(京城)、鄭在業(高陽)2—1 趙順衡(咸平)

◇왼씨름部

【第一回戰】

申南植(楊州)2—1 崔永俊(京城)、林啓鎭(德山)2—1 李奎煥(京城)、張長浩(京城)2—1 孫貞燮(高陽)

【第一回戰】

許承和(龍城)2—0 金馬玉(黃州)、邢和洙(价川)2—0 金南郁(新浦)、玄賢聲(黃州)2—1 金信洛(洪原)、宋炳錫(黃州)2—0 朴龍光(北靑)、金顯淳(安州)2—0 禹敬洛(新浦)、金二俊(慶州)2—0 金信洛(洪原)、趙恒淳(黃州)2—0 崔敬善(京城)、李成株(新浦)2—0 崔晩鎬(開城)、高鳳敏(京城)2—1 金永興(京城)、羅九出(大邱)2—0 朴成浩(永興)、朴春東(元山)2—0 尹夏炳(瑞興)

【第二回戰】

許承和(龍城)2—0 鄭元燮(新浦)、玄明錫(咸興)2—1 玄賢彦(黃州)、金二俊(慶州)2—1 趙恒淳(黃州)、宋炳錫(黃州)2—1 金顯淳(安州)、李成株(新浦)2—0 朴春東(元山)、羅九出(大邱)2—0 韓錫熙(北靑)、金南郁(新浦)과高鳳敏(京城)兩君不戰勝

"뷰로"利用激增

昨年中斡旋千四十團體

철도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기관인 『쥬리스트·뷰로』(旅行協會)를 이용하는 수효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소화십삼년도 한해동안에 부산 대구 경성 신의주 원산 함흥등 여덟곳 안내소에서 알선한 여객단체는 합계 일천사십단체에 그인원은 오만구천오백육십삼인이나된다 그러고 개인으로 안내소를차저간수효는한개삼십오만일천삼백팔십삼인이나되는데 일선단체로나 개인으로나 모두 전년도에비하면 훨신 늘어서 조선에 『뷰로』지부가 생긴이래에 처음보는기록을 나타내엇다 이것을보아서 작년한해 동안에 조선철도에 여행자가얼마나 엄청나게 만하엿슴을알수 잇다

學生庭球經過

慶應 5 早大 0

東京六大學野球리ー그…慶應對早大의 第一回戰은 三日午後三時三十八分부터 神宮球場에서早大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五A對零으로 慶應軍이 先勝하엿다

慶應 2 0 0 0 3 0 0 0 A
早大 0 0 0 0 0 0 0 0 0 …0…5A

朝鮮學生庭球聯盟主催의第五回全朝鮮學生庭球聯盟戰第一日은 三日午前八時半부터 京城運動場庭球코ー트에서 十三個校選手가 參加한가운데 열리엇바 昨報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티 第一部에는 昨年度優勝팀인 普專이 第二部에는 延專팀이 各各勝勢를보이고잇다

◇第一部戰

普成專門 20…1 平壤醫專
中央佛專 14…14 世醫專
中央佛專 13…12 平壤醫專
京城醫專 16…13 大邱醫專
京城醫專 14…10 法學專門
普成專門 20…8 法學專門
世醫專 14…11 大邱醫專

◇第二部戰

延禧專門 19…12 水原高農
京城高商 14…12 京城高工

學生對校陸上戰績

【第一日得點】1 普專五五點 2 高農三六點 3 京醫一六點 4 大學二三點 5 大邱十點 6 大邱八點 7 高工、高商各七點 9 延專六點 10 法專齒專各五點式

【投砲丸】1 姜永善(高農)一〇米五六 2 馬鍾國(普專)一〇米八〇 3 小原(高農)一〇米四〇半

今日運動

▲씨름=第三回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第二夜 午後七時半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 (入場料一般五十錢、學生三十錢)

▲庭球=高專庭球리ーユ 第二日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코ー트 (觀覽無料)

▲陸上=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 第六回全朝鮮大學高專陸上對校選手權大會 第二日午後一時 京城運動場 (觀覽無料)

▲野球=京城實業野球리ーユ…殖銀對遞信、京電對府廳各二回戰 午後一時 京城球場 (觀覽料=네三円 四十五錢、一般二十五錢、學生十錢)

▲柔道=朝鮮學生柔道聯盟主催 第三回全朝鮮學生柔道大會 午前九時 光化門通警察官講習所道場(觀覽無料)

▲排球=朝鮮排球協會中央支部主催 男女一般排球리ーユ戰第二日 午前十時 龍山鐵道코ー트

▲軟式野球=京城銀行團軟式野球聯盟戰第八日 金聯對殖銀、漢銀對東銀、商銀對貯銀、朝銀對朝信 午前十時 奬忠壇球場 (觀覽無料)

4 李▲▲(普▲)一〇米二七 [illegible]

◇ 여적

남이 가물니 농가의 걱정이 심상치안타 ○ 장마때 귀찬흔비를 이런때 생색잇게 좀내려보구려 ○ 배화점에선 손님을 끌려고 극장을 경영하려라고, 그럼 극장에선 또배화점을 경영해야 하지안나. ○ 철도국에선 뻐너쓰 사태가 나리라지. 밧는사람은 신통치못할텐데 부러울사람은 만흘걸.

曆 六月四日(日曜)陰四月十七日 ▲干支壬申 ▲日出午前五時十三分 ▲日南中午後零時三十一分 ▲日入午後七時五十分 ▲晝間十四時三十七分 ▲月出午後九時三十分 ▲月入午前六時五十七分 ▲滿潮(仁川)仁川 午前六時四十分 午後六時四十五分

今日天氣 晴一時曇

廣告

膀胱가다루와 腎臟病의治療

고치두지안흐면生命에關係된다

[illegible]

東京市神田區 ... 臺山院事務所 振替東京七五二一四八番

治淋特效 治淋特效 治淋特效

世上엔偶然이업다!

效果 本位

治淋療法의一大革命・完治率99%

治淋特效成分G—U—サイド가 從來의治淋療法에 一大革命을齎來하야 完治者數萬을내이고 現代醫學史上에 光輝잇는 한ページ를 차지하게된것은 偶然한일이아닙니다

本劑가 出現되기까지에는 世界醫學大家들의 말할수업는苦心慘憺은勿論이오 累巨萬의硏究費와 十數年의 歲月을 經過하고야 艱辛히目的을達하게된것입니다

本劑는 從來의淋藥과는 根本的으로 相異하야體內에드러가는即時로 殺菌・溶菌・喰菌의三大作用을發揮하므로써 速할때는 二三日間의服用으로 止膿・止痛・淋絲消滅의 特効가나타나 從來의다른淋藥에서는 經驗하지못하엿든 不可思議의効果를 보이게됩니다。

(全國有名藥房販賣)

特性G—U—サイド創製에도成功!

G—Uサイド療法으로效果가不明하든 特異體質患者에게適應한 特性G—U—サイド가 苦心硏究한結果今般에創製되야 이로써 G—U—サイド와 本劑를 連用할時는 99%의驚異的治療率을 내이게되엿읍니다。

新治淋特效成分發見

G-U-サイド ギユ

GZ—99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紐育、台北、天津

松竹映畫

六月一日ヨリ四日間 ◇松竹大船大作 心の太陽 野内美子 三井秀男 水戸光子 笑賀小僧
◇松竹京都異色大作 冬島泰三 監督 兩國梶之助 川浪良太郎、伏見信子 伏見直江、久松三津枝 土俵に賭った天下第一流…身體は小さくても闘志は漲る
各社ニュース
マネキ 平壤

桃花劇場 電龍一三三

六月四日ヨリ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一時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全勝キネマ社特作◇ 大毎・RKO パテーニュース
『馬子唄千兩』 監督 山田榮則 主演 松本榮三郎 宮川敏子
◇松竹大船作品 『生活の勇者』 監督 深田修造 主演 坂本武・坪内美子・光戶光子
◇米リパブリック超特作 『海底下の科學戰』 監督 Rリブズイーソン 主演 レイクラッシュ コリガン ルイズウイルド
◇次週=キートンの頬役=虎と與太者=復讐の西部魂 乞期待

日活は映画 倍樂館
一日より特別封切 ◇グレイハウンド映画社 魔島カリビアン アンドレールーズベル トアスキンロック 主演 ◇日活京都大作 マキノ正博・稲垣浩 共同監督 袈裟盛遠 嵐寛壽郞、霧夕起子 江川宇禮雄、星玲子 始めて映畫化された要 鎭御前の哀艶秘史 ◇日活作品 露營の灯 富岡捷 監督 見明凡太郎、井染四郎 石井美笑子、宵谷久雄 各社ニュース

新富座 電光五六七七
六月四日ヨリ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一時七時卅分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
▲大毎ニュース ▲松竹京都作品 虎と與太者 監督 大曾根辰夫 主演 高田浩吉 北見禮子
▲コロムビア社超特作 復讐西部魂 監督 レイナーラ 主演 チンマッコイ 西部活劇
○サンフヰルム社特作 キートンの頬役 監督 マックスメセック氏 主演 バスターキートン二役 キートンの始めて笑ふ映畫!キートンの始めて演ぜるギャング映畫
次週=疾風荒原兒=吾亦紅前後 大會乞期待

大・和 劇
六月一日より特別封切 ジャン・コクトー・ワイ 響け凱歌 監督 ロバート・テイラ主演 青春の血潮ゆる若人の知る愛國心に對しときめく溢れる學生生活 映畫・ロマンスもかふ行進曲と涙と笑い混ぜて… 東寶大作 渡邊邦男 監督 プロペラ親爺 主演 涙と笑いのユーモア風景 ニュース 各社ニュー・外

中部版

분돈벌랴다가 工夫一名重傷

【開城】경의선공사장 사무원 … 공사장감독의 부주의로인한 …

사고의 … 이되는 … 경의선복선공사장 … 현장감독자인 … 주의로인해서 인부 …

開豐郡各面各村에서 婦女子移秧團結成

손不足한農村에萬五千名動員 十五日까지는移秧全部完了

【開城】개풍군내에일만칠천여정보의 수전에는 지난일일부터 모내기를 시작하여 오는십오일내에는 전부이앙을 완료할계획인데 해마다 농번기인 이때만되면 일손이 부족하여 다른지방으로부터 인부를 사오게까지되엇다 더구나 금년은 각종공사판게로 동원주고도 전가리 인부를 구하기도곤난하고 또는빈농으로 인부를사서까지 농사를 짓는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번개풍군농회에서는 아가씨 비상시에 여자도 농군으로 진출해야한다는 취지미테 부녀자이앙단을 각면각부락에 조직케하여 육외노동에 진출케하엿다 따라서 이번이앙기에 동원될여자 이앙단원수는 무려 일만오천명에 달한다고한다

芙蓉面協議會開催

【芙江】충북청주군부용면(淸州郡芙蓉面)에서는 지난삼일 본면사무소내에서 박면장개회사로 십삼년도 제일회 협의원회를 열고 호별세조정을 오전아홉시부터 오후한시까지 만장일치로 가결코 협의결정한후 박(朴)면장과 협의원일동은 본면협의원 … 부락(部落)을 시찰한후 친목을도모키위하여 하루의배노리로 그날을 재미잇게 보내엿다한다

쓸쓸한國民登錄

仁川에서겨우十五名 要登錄者는約四千名의多數

【仁川】지난일일부터 개시된국민등록은 인천부사회과에서도그 사무를 취급하게되엇다 국민등록실이 개점한 제일일에는 겨우천오백 문의가 잇섯다 … 국소에 들린다 一、간이보험과 조선을 소개하는 영화(全四卷)을 만들어가지에서 영사한다

冷氣와旱魃로 憂慮되는農事

【平澤】지난사월하순까지는 비가 때대로잇서서 농작물은 전에업시 조호전은 보이고와스며 맥작도 대풍을예상하고 오던중 근일에는 아침저녁으로찬바람만불고 비올가망은 조금도업서서 맥작성숙이 잘아니될뿐만아니라 이앙기를 당하엿스나 물이업서서 이앙을못하고 농가에서는 공황과우려중에차여잇다

金浦勤勞報國隊

一日、第八回出動完了

【金浦】김포군에서는 각면근로보국단원중에서 한달에 한번씩 일백오십명의 단원을선발하여 송도부지영인 송정도로공사장으로 출동시켜가지고 근로봉사에 종사중이든데 지난일일에 제팔회로 또출동을하게 되엇든바 각면근로단원은 농번기임에도불구하고 동일오후두시정각에 일제히 송정공장으로 전부집합하엿다 그날에는권군수(權郡守)를 비롯하여 각면장과 신문기자등까지 참가하엿든바 먼저단원일동에대한 점검을 마친다음 국가합창, 황거요배 황국신민서사제송등 여러가지 식순을 마친후 권군수의 훈시가 잇섯스며 연합대장 박승무(朴勝武)씨의주의사항과 비산(飛山)주임의 인사의 말이 끗나자 훈련도장으로 들어가게되고 먼저간단 근로단원은 각기자기집으로 돌아가게되엇다 그공장에는 김포근로단원 일백오십명 부천, 시흥각일백명 합삼백오십명이매일근로봉사에 활약하고잇는중인데 그들은도대와가티 규율적행동을하면서 성의잇는 태도로작업의 광경은 참으로 보는사람에게 만흔감격을주엇다

一、조선체육회와 꽁몽수최로 제화박사 태정정효(太田正孝)로 내정

一、간이보험 표어를 서울각 우편국소에 나누어주어 사무소에 걸게한다

一、산전(山田)체신국장의 강연을 "레코―드"하여 각우편 … 강연

緊急面長會議 瑞山郡서開催

【瑞山】지난일일 오후한시 군수회의에 갓다온 서산박군수는 군내 각면장과 학교장 어업조합이사를 전부 특사소집하여군청회의실에서 특별 긴급회의를 열엇는데 요지는 지난삼십일일임시 군수회의에 전달한 남총독 훈시를 전달하기 위함이엇다고하며 그밧게도 다방면으로 군수의 훈시가 잇섯다고한다

光州練眞會員 四名鮮展入選

【全南支社發】작년부터 동인들끼리 조직한 연진회(練眞會)에 …

簡易保險創設 十周年記念行事

시월일일은 조선간이 보험창설 십주년이되므로 체신국에서는 음파 가론기념행사를하여 간이보험지를 일층선전하기로 되엇다

一、경성에서 기념식전을한다

一、각체신분장국에서는 지방총사원 표창을한다

一、각중요도시에서 기념강연을한다 강사는 전대장차판 경 …

豐作의開豐郡麥作 五萬石收穫豫想 平年보다約五割增收

【開城】개풍군내 금년보리 며 작년에비하면 상황의충수로 농사는 근년에 볼수업는 대풍작을 점치고잇다 즉 금년봄 은 우순풍조하여 발육이 극히 양호한데 중면경은전사백여정보에서 금년에산출 수확고는적어도 오만석은 예상한다는바평년에 비하면 오할의 증수가되며 작년에비하면 삼할의증수로써 즉 일만석은 증산될것으로 확신된다고한다 그런데 대소맥의 수확고예상을 나누어보면 좌와갓다

大麥	二萬九千八十四石
小麥	一萬八千一百七十六石
裸麥	一千五百四十九石

四億突破도無難

仁川港의貿易額激增

【仁川】무역인천항의 지난오월중의 수출입은 삼백팔십삼만이다 이중에 어입은 일백오십만사천사백사원에 어입은 일천오백십구 … 계에의하면 이천오백구십팔만구천오백원 … 으로 이를전년동기에비하면 수 … 내용에잇서서는 수출(輸出)에 사입은 일백칠십삼만팔천삼십오원 … 배칠십사만이천삼백이십칠원이며 수입(輸入)은 이백삼십삼만오천 … 의 경증을보이엇고 수출은삼십 … 년도에 사오억불파도 무난하리라한다

同一한土地를再賣 契約金만詐取!

四寸兄의印章을僞造行使코綻露 仁川署에서犯人을嚴重取調

【仁川】수색에 겨신팔린 청년이 문서인장위조죄로 인천서에 인치되어 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다는데 그내용을 드른바에의하면 다옥정가다 현주를 인천부 김태경(大和町)이 백구십오번지에 둔 김태건(金泰健)(二二)은 자기의소유재산도업시 화류계에정신이 빠저 여자들의 환심을 이끌고저 돈을쓰러하나 재산이업기때문에 금전변통을 연구한나머지에 지난사월초순에 부내화정 이백구십사번지에잇는 자기의사촌되는 김태범(金泰範)의 인장을위조해서 김태범의 소유로지인 대화정이백칠십삼번지 논(畓)일천팔백칠십오평과그곳에잇는 밧(田)일천사백십이평을파라(賣)계회으로 대화정에잇는 이용(李龍)이란일(李光一)두사람에게 그매도일선을 위임시켜지난오월이십일일에 부내경정(京町)일백사십번지 김용건(金龍權)에게 평당삼원오십전씩 팔어전의일만일천오백원에 매도계약을하고 계약금이천원을 사취한후 이전등기를 마치엇다 전기김용권씨가 남어지돈을 지불키위해 다소의 섬이나서 사실을 조사한결과 부정매도인것을 알게되자 계약해제를 요구하엿스나 전기 김태근은 도다시 이용이만일과 상의하고 다른곳으로 매매를 주선하엿는데 지난이십일에 부내경정배구번지 황동화(黃東煥)에게 동일한수단으로 매매계약을한후 계약금이천원을바더 전기김용권씨의 손해를배상하고 지난일일에 부내궁정(宮町)비해도(裵海道)에서 잔금을지불할것을 알고 인천서형사대에게검거되엇는데 앙쌍한씨의손해만이 천원배원이라한다 검태건은부하여업수워조중이라한다

貯蓄奬勵問題로 金組理事協議會

來二十六日忠南道에서開催

【忠南支社發】국민저축장려문제이외에 만흔중요사항을 정해 금융조합이사회의 도천제일회의실에서 오는이십륙일 오전여덟시삼십분부터 전중(田中)내무부장등 도천제일회의실에서 연다는바 오전중은 지사의훈시가잇슬터이며 오후부터 지사사항과 조합측 의견과희망을 청취하고 식은(殖銀)관계의 협의가 잇스리라고한다 동회에참할회원은 다음과갓다 각조합이사 사십구명동북이사

徐廷昆氏美擧

【牙山】아산군도고면(道高面)유지 서정곤(徐廷昆)씨는 동리에잇는간이교회예배당 부지 일백이십평을 기부하여 당교회에서는 그의아름다운뜻에 감사하며 요즘 동기수수까지 인로된것으로지난이십월 예배당 봉헌식(奉獻式)을 성대히 거행하엿다한다

全州圖書館閱覽

小學兒童이斷然首位

【全北支社發】지난오월중 전주도서관의 열람을보면 아동이 일천오백십칠명 일일평균 육십일명이 최고이요 성년은육백팔십오명 화생은 육백팔명으로합계 이천팔백구명 일일평균일백십오명에 달하엿스며 일인례은 어학과 문화서적이수위라고한다

육매여자는 서씨이 지난삼실 서산군대산면삼거리(瑞山郡大山面三巨里)에잇다 이세자세한 내용을 드러보면 자살한사상을 극도로비관하고 자살한사람은 전기동리에사는 방이옥(方)원제(□島)씨의처 이씨(李氏)(三六)로 원래 신병도 잇섯든다가 극도의 가난으로하야금 남편되는사람은 면방곳으로 전전하면서 품파리하고 그부인은 어린자식 하나를데리고 굶다 먹다 노방기울 그날그날 …

貧困을悲觀코 人妻縊首自殺

【瑞山】동리이도 비방에서 목고 쓰러지 …

農振側의貯蓄額

五十萬九千九百餘圓

【春川】농촌진흥회 공려조합장 회탐산계등 기타 각단체에서 소화십삼년도에 공동작업 공동경작도로 근로저축해 놓게꼭꽁 단체에 관계된저축액이 총액오십만구천이십원이란 합목별로보면 다음과가타한다

▲實行團體數	七、六〇〇	三、三六一圓
▲同會員數	三五、九六人	
▲備荒貯穀		三一三、三六八圓
▲共同耕作貯蓄		一三四、〇四一圓
▲共同作業貯蓄		一八、三〇三圓
▲副業貯蓄		一六、六三五圓
▲節米貯蓄		六、五九六圓
▲勤勞貯蓄		三、〇〇三圓
▲其他		八、二五三圓
合計		五〇九、九一六圓

麥適期刈取

【春川】맥작류의 수확기를 압두고 강원도에서는 적기예취주간(適期刈取週間)을 금월중순에 설정하고 관계직원동원하에 독려하기로 되엇는데 거둥시기를 노치면 수량이 감하고 품질이나 빠질뿐더러 간작(間作)물의 영향이 크므로 이것을방지코자하는것이라한다

全州神社御造營

六月奉仕日決定

【全北支社發】전주신사(全州神社)어조영에관하야 전주부내의 각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정연맹의 유지중의 봉사작업활동은 다음과가리결정되어 각자에게통첩 발하엿다고한다

▲一日消防組 全北高女 師範 二日道廳本館 全州高女 三日海關小學 理髮組合 華山面四日全北製線 郵便局 南田兩村 五日北中 南中 六日相生小學 金組理事 七日郵便局 八日全州 南中八日師範 雅鐵、九日農校 衛隊 刑務所 十日大正町六、七丁 煙草販賣所 金北電氣 十一日龍進兩青年團, 法院 檢事局 產業組合 曲子會社伊東 面 華浦面十二日 大正町一丁目 國策會社同四丁目 十三日本町二三目 壽南小學校 十四日本町三四丁目 壽南小學 花園町 十五日完山町 完山小學 錦町十丁 十六日本町三丁目 東相生町 商銀 八達町 十七日工業學校 旅館組合 道立醫院 十八日道廳 片倉 十九日全州小學 二十日 北大和町

金剛山探勝團登程

本報瑞山支局主催

【瑞山】기보=본사서산지국주최 금강산탐승단은 경성시착단은 예정보다 다섯명이나 초과한일행 이십삼명은 삼일 오전여섯시경 신일광(申日光)씨 인솔하에 서산을떠나 경성으로향하엿다 경성서 씨는대회와 본사를방문하고 맑을향하여서차로 내금강에향하엿는 바 단원씨명은 다음과가다

▲金東鎭 ▲崔九鏞 ▲崔起錫 ▲金龍炳 ▲趙昌顯(趙昌來)▲金生植 ▲金成來 ▲梁興烈 ▲尹世益 ▲李政鎬 ▲李甚昌 ▲金榮基 ▲文顯成 ▲朴熙鎭 ▲尹學玉 ▲崔昌鎭 ▲賈秉鎭 ▲文德仁 ▲鄭鎬權 ▲張東煥 ▲金昌鎬 ▲姜能錫 ▲尹光遠 ▲尹世巖 ▲文昌云

仁川의至急電話

今月中에는割當決定 材料制限으로架設工事遲延

【仁川】지난사월에 신청중인 인천부내의 급설전화에 대하여서는 인천우편국 전화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인천전조선의 시청상태에 잇서서는 통제상이 진정사의 수효가 단연만흔데 인천의 청기청진(請求)나진(羅津)나남(羅南)도 각기증가 되엇스나남조선지방이 그다지 만치안타다 이신청을 밧는 체신당국에서는 당수의 결정과 우선권의 필요한편공서 공장방면등이 심의를하고잇스므로 금일 중순경에는각 오면국에 할당수가 결정되리라하며 금년은 외선(外線)재료가 제한된관게로 추천후의 가설이 상당히 느저지리라고한다

■二十一日新町 二十二日東花町 二十三日本町 二十五日 … 二十六日 … 二十七日 … 二十八日 … 二十九日 … 三十日 …

六百圓을獻金

開城金基浩氏熱誠

【開城】개성부북본정(北本町)에서 선일인상상회(鮮一人蔘商會)를경영하는 김기호(金基浩)(□)씨는 일사봉이시국을지이 일사북선이시신변하고 … 비하여 … 일선장병의 노고를 남달니생각하던차에 지난이일 국방헌금으로 육백원을 개성서에 헌납수속하여 총후국민의적성을 보인바잇섯다

貧民戶稅代納等 千三百餘圓喜捨

井邑金榮九氏의壯擧

【井邑】정읍군산외면종산리 김영구(金榮九)씨는 금년이월 면정거리(金榮九)씨가 이사온 기념으로 … 에 드리어 …

一、駐在所 … 七百圓

一、山外面 … 五百圓

一、山外面小學校 二百圓

一、山外面消防組 一百圓

一、面內貧民戶稅代納 三十圓

計 一千三百三十圓

國防獻金

【元山】 …

弓術會受賞金으로 戰傷兵士를慰問

【牙山】충남온양궁도회 … 에서 …

全朝鮮弓術大會 大盛況裡에終了

【牙山】기보 충남온양온천관 … 회(全朝鮮弓術大會)주최의 …

▲入賞者

▲男子部 一等(麗水)李芳 二等(統營)金祥洙(龍山)宋龍祚 三等(麗水)權寧四(高陽)李興根(南海)金鍾彦 四等(京城)李文換(兵營)柳文根(咸安)朴桂秉(儒城)李東秀(群山)崔鍾鎬 六等(水原)宋曉東(公州)申海玉(錦山)朴炳一(京城)朴相善 五等(麗水)張炳一(統營)梁鍾英 金鍾玉(麗水)張炳一(統營)梁鍾英 洪鳳均(仁川)洪釆浚(京城)金久善(京城)

▲女子部 一等(溫陽)金春溪 二等(兵營)徐順淑(密陽)權石圖 三等(天安)千彩紅(溫泉里)李花仙(溫泉里)金一枝

水原

水原市民大運動會

▲時日 六月十一日午前八時
▲場所 水原公設運動場(華紅門外)
◇主催 水原實業協會 水原市青年會
◇後援 水原各新聞支局

當選謝禮

咸州郡西州面協議員

玄白李李朱洪玄李韓崔朱李
圭光基淵舜南應奎用榮連圭
桓珠榮稷克均鎭瑛武俊欽植
(無順)

005142

當選謝禮

咸州郡連浦面協議員(無順)

文金鄭文金申朱韓文李
希琫泰武道相鍾允希源
麟斗煥燮逸麟稷孝道杓

有權者諸氏 殿

當選謝禮

安城郡一竹面協議員(無順)

李思悳　徐鍾殷　韓澤愚　閔泳昌　鄭東軾　尹泳玉　李漢鵬　安鍾學

二竹面協議員(無順)

沈潤植　韓宅洙　須須木定四郎(竹山郵便所長)(六〇)　梁禹錫　林允用

當選謝禮

咸興府會議員

金達林

當選謝禮

咸興府會議員

金夏涉

當選謝禮

咸興府會議員

朱亮墳

當選謝禮

咸興府會議員

朴孝仲

當選謝禮

咸興府會議員

權宅周

當選謝禮

咸興府會議員

李曦燮

當選謝禮

咸興府會議員

李翊華

當選謝禮

今般龍岡郡海雲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龍岡郡海雲面協議員(取扱順)

金東魯　朴性哲　李淳翼　金思潤　金光煥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張潤河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尹錫奎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李泰完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李遇春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劉泰卨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文泰洙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林在琢

當選謝禮

今般咸興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가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咸興府會議員

李衡寀

當選謝禮

今般龍岡郡金谷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龍岡郡金谷面協議會員(取扱順)

李澤九　魯永元　張元植　堀口萬藏　金泰鎭　李秉軾

當選謝禮

今般龍岡郡貴城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龍岡郡貴城面協議會員

金炳斗　安洛守　朴用高　姜炳俊　洪觀燮　姜泰膺

當選謝禮

今般光州邑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五月二十一日

(無順)

許龍伯　金奉圭　鄭泰驥　崔斗煥　鄭駘永　朴鎭見　姜大和　白汶鉉　李季秀　鹽章喜　上庄郎　藤村重次郎　長尻市善　尾川國米　賴

當選謝禮

今般筏橋邑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筏橋邑會議員(無順)

曺万燁　徐三早　徐閏錫　朴魯金　金永漢　金炳淑　蔡重鉉　金永國　具致馨

當選謝禮

今般順天郡栄安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黃碩允　金昌杓　張哲淳　金炳甲　金炳錫　安顯洙　鄭圭棟　姜彦基　姜三鳳　秀

當選謝禮

今般龍岡郡瑞和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龍岡郡瑞和面協議會員(取扱順)

趙德潤　金明濬　張翠祿　鄭元弼　金得善　金重千　崔福萬　吳永淳

當選謝禮

今般高陽郡江東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를蒙하와不肖等이敢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高陽郡江東面協議員(無順)

徐敏　金永錫　宋昄錫　宋昌變　洪三源　趙海玉　申孟洪　宋桂變　宋圭熙　申尙杰

朝光 六月號 女性 六月號 少年 六月號 發賣中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短篇小說

바다로간다 (26)

金南天 作 鄭玄雄 畵

五、饗宴의 畵帖(六)

『한바퀴지 한참이겟네.』

하고 영자는 연못가에 서서생각난듯이 지껄여 본다. 그것은 준호에게 건느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혼잣말에 가까웟다.

그러나 그의 여페 서서 파란 이파리가 소반처럼 깔린 연이를 바라다보던 준호는

『참 작약이 피엇겟군요.』

하고 영자의 말에 대답하엿다.

『못가에 서서 한장 찍고 함박꼿 여프로 가 봅시다.』

준호는 처음으로 사진기계를 든다.

『못가에 안즈신담 뒤로 찍어 보겟습니다』

준호는 영자가 섯는데서 두서너 발자국 물러선다.

『예술사진 찍으실려오?』

하고 영자가 돌아다 보며 웃는다.

『뭘 되겟는지 박아 보아야 알지오. 댁의 얼굴을 빌리자구 말씀 엿줍기가 미안해서 겸사 겸사 예술사진이나 찍을는지오.』

영자는 다리를 구피고못가에 쭈그리고 안잣다. 바른 팔로물을 만지는 시늉을한다. 한참동안 그러컨채 안잣다가,

『인제 다아 백엿서요?』

하고 물어 보는것을 사진기계를 눈에다 대고 연해 『핀트』를 마추기에 바쁜 준호는,

『잠깐만 그대루…』

그리다가 짤깍소리가 난뒤에

『다아 됏습니다.』

영자는 못가에서 일어낫다.

『잘 백이십니까?』

하고 영자는 잔디판으로 나서며 물어본다.

『글세요 원, 자화자찬두 쑥스럽지만, 또 너무 겸손하는것두 도리가 아니구…그런대루 누군가 알아 보게는 찍엇읍니다.』

『그럼, 잘 백이시는 편이군요 난 또 신문에 가끔 나는죄수들 상판처럼 그러케 될까 겁내 햇더니 그럼 안심해두 되겟군요.』

영자는 애숭이 가튼 교태를 표정에 그리며 준호를 처다본다.

『천만에 말슴을 인제 인화헌것만 보세요 사람보다 사진이 낫릴테니…』

둘이는 소리를 내어 웃엇다.

그들은 푸른 잔디판을 걷는다 내지인의 가족이 사오인 미술관 쪽으로 걸어 가는외에 아리 사람은 아무도 업다. 한참 팔아서 것는다. 푸른 잔디를 밟는것이 유쾌하다 영자는 가끔 처보다 한자가량이나 큰 준호의 얼굴을 처다 보군 엿슴가 눈으로흘겨보는듯한다.

뒤로 보나 아프로 보나 그들은 한창의 애인갓다. 영자는 남이 보아 그러케 생각할것을 스스로도 느끼며 생각하고 십다. 그러나 준호는 지내치리 만큼 예의를 가트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간다. 『미라』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부리를 치던 때와는 딴 사람갓다. 점잔코 인사성잇고 예절다운 언행이 자기를 존대해주고 숙녀처럼 떠 밧들어주는것 가타서 고맙고 반갑지 안흔배 아니나 이러한 행동가운데서 때때로 영자는 술취한 준호가 그리워 지는것이다 함부로 수작을걸고 작난을걸고 주정부려대고 몸을 주물고……그런 준호가 선뜻머리를스치고 친밀한정을 뿌리며 마음속을 지내가는것이다

그러나 준호는이런것을 아는지모르는지 알고도 모른척하는지 그러케표리 부동하게 음측이는것이 요즘청년들의 특징인지―천연히 영자의여페서 걸어가고잇다

『곳헐 우리함박꼿 구경허구 갑시다』

영자는 그를따라 함박꼿치만발한 돌안으로 들어간다 꼿향기가 돌안에갓득히찻다

『꼿냄새가 너무독해』

하고 영자는 준호를처다보며웃는다

『인제 정면으로 하나박읍시다 꼿뒤에서세요 누구의 향기가 더독한가 봅시다』

어려케말하는 준호를 영자는 눈으로흘겨보는듯한다.

에 미소를 띄운다.

『사람들이 적구 먼지가 안나서 조쿠먼요.』

하고 영자는 입을 연다.

『먼지는 안나서조 치만 사람이야 만흐면 어떱니까? 누가 보면 안 될일 잇습니까?』

준호의 말에 영자는 걷던발을 잠깐 멈추고

『내가 누구의 걱정을 해주는 줄 아슈?』

하고 준호의 나츨 처다 본다.

『왜요? 내 걱정을 허시는 중입니까? 여자허구 산보할 튼 중학생이라구 뭐 퇴학처분 당허겟수.』

영자는 그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안코 다시 발을 옴겨 놋는다. 준호의 대답에 어딘가 불만이 가는것갓다. 준호는 그런 대답가운데서 자기를 여째 단순히 하나의 『여자』로만 취급해 버리는 것일까. 좀 더 만족을 줄만한 명확한 『귀정』을 확실하고 친근한 『대명사』를 어째서 준호는 『여자』라는 말대신에 사용하여 주지는 안는것일까.―

라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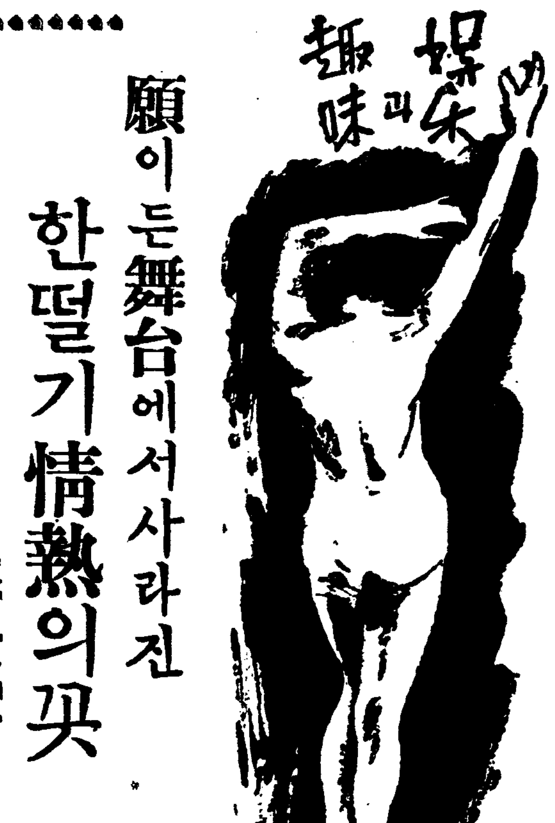
四日(日)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第十一回修養朝鮮大會實況(國語)―京城府民館大講堂으로부터中繼―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라디오小說「溫泉記」―白南天作 朴京植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京城實業野球聯盟리―그戰實況(國語)―京城野球場으로부터中繼― ▲同二時 [illegible]實況(國語)(平壤野球中斷)朝鮮[illegible]第二十師[illegible]―[illegible]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二) 「에기발새」尹福鎭詞 金世炯曲 朴景浩 ▲同六時五五分 [illegible]뉴―스 ▲同七時五分 [illegible]講話「人格의人」李[illegible]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合唱 京城放送合唱團 ▲同八時三〇分 [illegible](레코―드) ▲同八時四〇分 저녁 實況「朝鮮日報社主催全朝鮮 저금大會」―朝鮮日報社講堂으로부터中繼―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豫定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前六時四五分(城)季節의소리 京城郊外光陵에서錄音 ▲同一一時五〇分 (大) [illegible]市況 ▲午後零時五分 (東) 狂言 ▲同一時(東) [illegible] ▲同一時二〇分 (東) 東京六大學野球리그戰實況 [illegible]으로부터中繼 ▲同一時二〇分(東大)[illegible] ▲同二時三〇分(東) 新人코―새르트(三)[illegible] ▲同六時 (大)[illegible] ▲同六時二五分(東)[illegible]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演)[illegible] ▲同八時二〇分 (演)漫才 ▲同八時(演)[illegible] ▲同九時(演)[illegible] ▲同九時二〇分(演)歌[illegible]

娛樂과趣味



願이든舞台에서사라진 한떨기情熱의꼿

演劇에바친李景雪의半生

여배우 하면 우리는 곳 인끼(人氣)를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여배우의 인끼하면 동시에 우리는 수업는 곡선을 연상하게 된다. 물론 시대의 탓도 잇겟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잇는 매력에도 다분이관계를 가지고 잇슴을 또한 경솔히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배우의 평가를 따지려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매력이면 매력을 어떠케 얼마마한 정도로 살리엇느냐가 말하자면 여배우를 평가하는 제일의 비평수준(批評水準)이 되지안흘까. 여기에 말한 매력이란 물론 얼굴이나 몸매의 아름다움이나 미옹을 가르키는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여배우의 내적(內的)고민(苦悶)이란 도저이 외부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업슬 만치 미묘하고도 『데리케이트』한것이다. 그러나 기적(奇蹟的)으로 무대에 들어서는 처음부터 못살까지 조금도 굽힘을 모르는 인끼를 지속(持續)하고 일관(一貫)한조선의 『스타―』가 잇섯스니 그의 이름이야말로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새로운 이경설(李景雪)이다. 이 일대의 정렬(情熱)의 『인끼스타―』 경설의 이야기를 극단의 『베테란』이서구(李瑞求)씨에게 듯기로하엿다.

舞台로타는 少女의꿈

함경북도 청진(淸津)에 피어난 한떨기 붉은장미―그가장 차이땅의 무대에서 피어나고 역시 무대우의 꼿으로스러질 슬픈운명을 타고난 이경설(李景雪)이엇다. 그는 보통학교를 마치자 곳 불가튼정렬을품고 무대로 뛰어들엇다. 처음에 얼마동안은 이름도업는 지방순회극단에서 그날그날의 고달픈신세를보내고 잇섯스나 차차 나이가 드러가고 철이날수록 그의마음도 막연하나마 어떠한 꿈을 잡으려 불안해갓고 초조해 갓다.

舞台는도라간다

女俳優無常浮沈記 ③

서울! 희망의 도회! 꿈의나라! 그는 지방에서 지방으로 『집씨―』가튼 서름픈 여행을 게속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의태양』인 서울을 꿈에도 이저버리지 안햇다.

서울로 올라가서 좀더 큰무대에서 좀더 조흔 연극을 하여보앗스면―그의 불타는 정열은 그로하여금 자꾸자꾸 서울노 유혹하기 시작하엿다.

마음의날개는 오직서울로!

그가 바야흐로 이팔의 봄을 마지하던 어느날 아침―경설은 아무에게 알리지도안코 어디로 간다 말하지도 안코 다만 구든 내 마음을 채쭉질하여가며 서울로올라왓던것이다. 서울로오자 그가 처번으로 올른무대가 김소랑(金小浪)일파의 취성좌(聚星座)엿다.

순회극단(巡廻劇團)에서 서울로 올라와

취성좌의 대간부로서 이름을걸고 청루대를 밟던청년―극장의삼봉 구석구석까지 드리친 관중들은 막이 나리고 연극이 끗나서도 그냥 멍―하니 안저서 일어서 나갈줄을 몰랏다. 월화가 가고 혜숙이 역시 무대를 멀리하고잇서 서울의 무대는 꼿업시 공허한 사막가튼 감이잇섯스나 그러나 경설의 출현으로 말미아마 쓸쓸하던 극장의 객석(客席)은 다시 봄을 만난듯 즐거운 우슴이 떠돌앗고 기운찬 박수소리가 우렁차게 터지엇던것이다.

『이경설!』 이경설을 한번 더 내보내라!』 이경설의 얼굴좀 다시보자!』

객석에서는 박수를 하며, 발을 구르며 휘파람을 불기도하고 소리도 지르며 이구동성으로 『이경설』을소리노펴차젓다.

경설은 과연 성공하엿던것이다. 천여명이나 넘는 관객이 초만원을 이룬 넓으나 넓은 극장을 경설은 외롱 우름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말엇던것이다. 비극(悲劇)을 하려면 의례수연은 『이경설』이란 이름석자를 크게 배겨서 돌려야되고, 손님들도 『이경설』이란 이름이 눈에 띄어야 구경을 갓다.

希望을짓밟는 無知한病魔

최고절정에올라인끼를 독차지 한 경설은 조금도 아래로 내려갈줄을 몰랏다. 그러므로 일부의 어떤사람은 그의 압날을 걱정도하엿스나 고향이함경도라 기질이씩씩한탓이엇든지 그는 매일가치 괴로웟지만 한결가치 꾸준한노력을게을르게하지안코 어떠케하면 좀더 조흔연기를 좀더조흔 연극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나, 하는생각에 자나깨나 마음의고삐를 늣추지 안햇다. 이점에잇서서 그는타협극피가튼 노력을 아끼지 안는배우엿다 당시의 처녀좌만 하더라도 이애리스(李愛利秀)가 잇섯고 신은봉(申銀鳳)이 잇섯스나 그들은 조금도 경설의독점한 세계는 침범치를 못햇다 그만치 경설은자기의 연기를위해서 자기의 생명을위해 서끄림업는 노력에 노력을거듭하엿던것이다. 그는 첫째 『세리후』가 뚜렷하엿고 다음무슨역(役)을맛든지 손님에게 열광적 인박력이 잇섯다

景雪의哀史를말하는 李瑞求氏

이러한 찬사(讚辭)를 그가차지하게된것은 오로지 그의 히생적인연습과 부절한 연구에잇슬것이다. 그러나 경설은 아까웁게도 건강을 돌보지안햇다 연극시장 (演劇市場)으로 들어가서부터 경설의가슴은 무서운병마 (病魔)의 벌레가 더빠른기세를 보이며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하엿다

의사에게 진단을바드니 아니나 다를까 폐병이라는 무서운 선고엿다.

폐병!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 무시무시한 폐병! 경설은 본시 몸이 허약한 탓이엇든지, 무대의 피로가 너무도 과하엿던 탓이엇든지, 그는 드디어 폐병이란 선언을 밧고, 캄캄한 대지(大地)를 향해서 통곡하여 마지안햇던것이 다.

폐병이란것이 슬프게 아니라 하고시픈 연극을 그 십분의일도 백분의일도 못하고 죽을생각을 하니, 울어도 울어도 서룸은 그의 원한(怨恨)은 꺼질줄을 몰랏다. 아아 원통한 이마음을 어디다 풀랴, 무엇으로 이즈랴. 경설은 별이 총총한밤하늘을 울어밝힌적이 한두번이 아니엇다. 이서구(李瑞求)작 『조국의애인(祖國의愛人)』의 보비(寶妃)의 역으로 또는 『폐허(廢墟)에우는 충혼(忠魂)』의 어머니의 역으로 인끼의 인끼를 거듭하고잇든 경설은 가슴을 두드리며 넘두도 분하고 원통하여 목메여 울엇다

鮮血로물드린 最後의舞台

손님들에게 차라리 안끼나 어서라를 경설의마음이 편이 주점 그다지 오래가는것은 아니엇다 경설은 드디어 내일을위해서 수천수만의 손님의 사랑을 그냥가슴에 안은채 각본(脚本)대신 약병을 손에들고 병석에 누은 경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게 무대를 그리워하엿든지 그것은 상상하고도 나믐이 잇슬것이다.

피를 토하며 그래도 무대가 그리워 밤잠을 못자고 애쓰는 마음―그는 드디어 새로운결심을 하엿던것이다.

『무대에서 죽어야지―』

여기는 경설은 드디어 그로하여금 신무대(新舞台)로 다시 갱생(更生)의 각광(脚光)을 차자가게 하엿던것이다

『마타하리』의 마타하리! 경설은 새카만 의상을 입고 『마타하리』의 역을 마타가지고 한손에는 대본(臺本)을들고 한손으로는 입바그로 흘러나오는 피를 씻어가며 무대에 올라섯던것이다. 『마타하리』의새카만 의상을 입은 경설! 이야말로 야릇한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랴. 연극이 한참진행되엇슬때 그는 드디어 오약소리도 못지르고 그냥 무대 우에서 폭 고꾸라지고 말엇다. 별안간 막은 나리고 연극은중지되엇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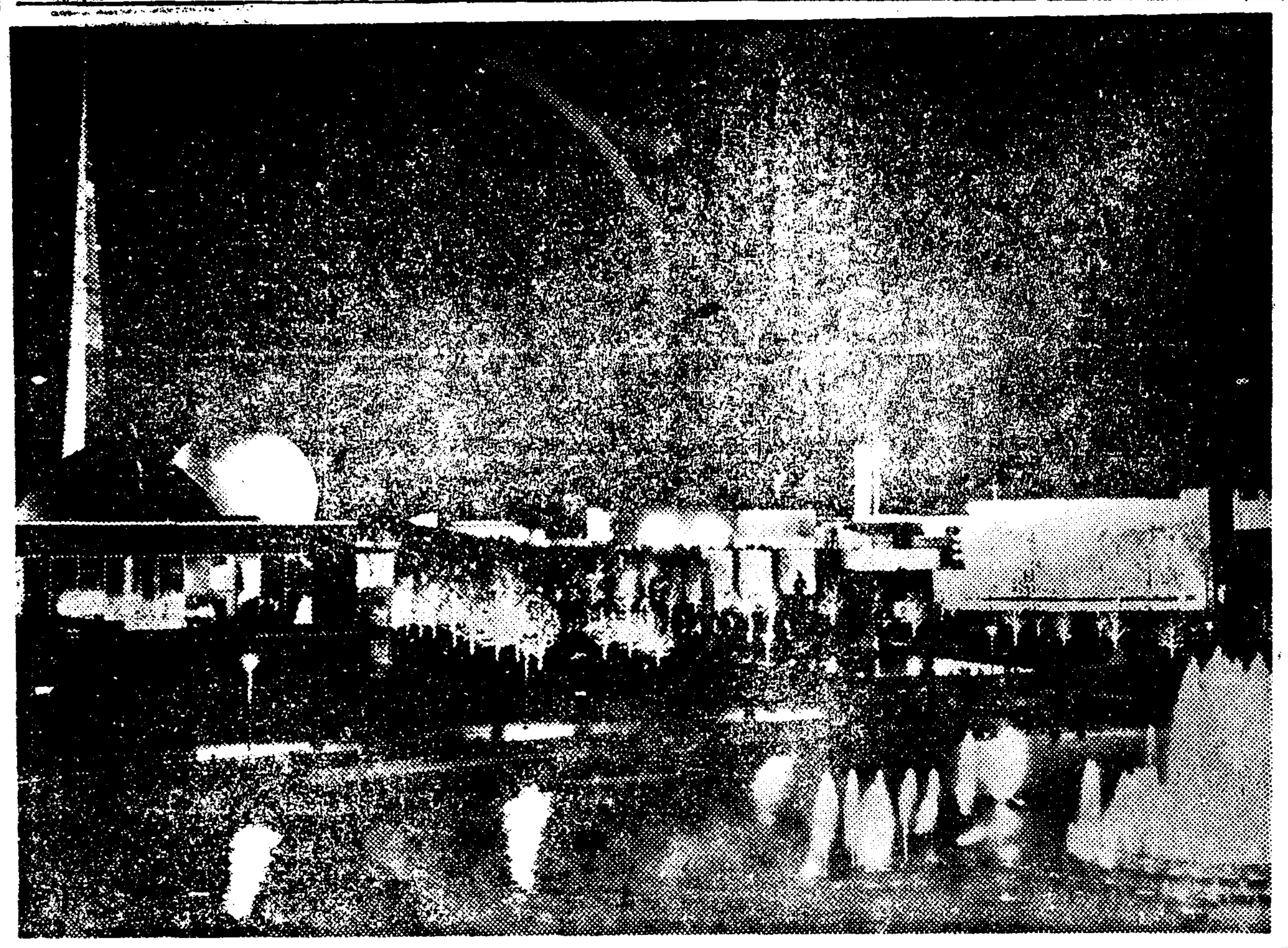
경설은 검은 『마타하리』의 의상을 입고 쓸어저서 피를토하고 잇지안는가!

이것이 경설의 마지막 무대엿고 최후의 연기엿다고 할것 가트면 세상이란 너무도 얄구진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자 마지막 원산(元山)에서 병하든의 짧바거리는 별의 수효를혜어가며 일찌기 『레코―드』에취입한 『외로운나그네』란 노래를 불르며 최후를 마친것은 너무도 극적(劇的)이엇다. 말하자면인끼에서 인끼로 날개를펼치고날러간 경설은 영원히우리들의기억에서 사러지지못할정열의배엿다.

珍品集

老年結婚記錄

【紐育發同盟通信】 봄철이 돌와 됫일까 최근영국에는 노인결혼이 아연대유행을 개시하야 가지에서 가지가지의 진기한 『뉴―스』가 꽃주하고잇다 그중에도 『하―트포―드샤』의 『프로덴』에사는 『쫀·헤샤―』라는 일흔여덟이라는노인은 사변전 금혼식(金婚式)까지 지내는데 그후 부인이사망하야 홀애비로지내더니 얼마전 연집에잇는 마흔여덟살되는『루쓰·도게트』라는 노처녀와 결혼하야 최연장자의 결혼기록을 깨뜨렷다 그러데 이에지지아니하고 흔들에사는『조―지·홀드버―』라는 여든네살된 노인은『알리스·프리―맨』이라는 일흔일곱살된과부와 약혼햇다고 발표하고는 내야할로『레코―드·홀더―』(기록소유자)야라고 기록공인을 주장하야 세인의이목을 놀래게하엿다한다



◇…世紀의不夜城…◇

방금개장중인뉴욕만국박람회(萬國博覽會)장의야경(夜景)

부러운이야기

自家用飛機로演奏旅行

【뉴―욕發同盟通信】 미국의유명한『피아니스트』요 또녀지휘자인『호세, 이치르비』씨는 최근 자가용비행기를 조종하야 가지고『뉴―욕』을떠나 사개월예정으로 남미연주여행을떠낫다 씨는『로산젤스』를 비롯하야『파나마』『리마』『페루―』『비에노스아이레스』등지에서 공연하리라고한다

씨는 비행기여행을 매우조하하는데 비행기를타면 예정보다도 약속을더잘지킬수도잇고 또조타는 일거양득의 이가잇다고하면서 씨는일반연주가에게 비행기이용을장려한다고한다

반다이의監督 戀人

『베스트』로被選

미국(米國)영화잡지『포토·플레이』사에서 선출한 일천구백삼십팔년도 최우수영화는『반다이』감독『넬손, 에디』『쟈―넷트』주연인『메트로』의 천연색작품『연인』으로결정되엇다 그사의상이 제정된후 이번까지매해선정된최우수작품은아래와갓다

▲一九二〇年, 유모레스크▲二一年騎馬車▲二二年 로빈, 후드▲二三年騎馬車▲二四年 世界의英雄▲二五年 大進軍▲二六年 보―제스―트▲二七年第七天國▲二八年 네아플▲二九年 디슬레리▲三〇年 西部戰線異狀업다▲三一年시마론▲三二年 永遠히微笑한다▲三三年 新草이야기▲三四年 白蘭▲三五年, 바랄난公主▲三六年 [illegible]▲三七年 나는바다의아들

凸問凹答

【問】 고양이가 발바닥을 할는 이유?

前回의【問】『윙크』는 무엇에 소용되는가

同【答】견양하는데 쓰든군요 (비행기, 맹수, 사나히 등속을 잡는데)

『…萬…國…博…』

十億弗을벌다

【紐育發同盟】뉴욕 만국박람회(萬國博覽會)는 지난사월삼십일부터 개장하게되엇는데 뉴욕박람회 회장인『그로버·박―렌』씨는 이번 박람회에 몰리어드는 세계각국의 손님들이떨어뜨리고갈 돈을 약십억(十億)『딸라』에 달하리라는예산을세우고 자세한 내역(內譯)까지도 다음과가티 발표하엿습니다

飮食物費	二億三千萬弗
宿泊費	二億弗
娛樂費	一億弗
商品購入費	一億四千萬弗
乘馬費	一億弗
萬博의費用	七千萬弗
通信費	一千萬弗
雜費	五千萬弗
合計	十億弗

이 계산에의하면『뉴욕박람회』의 손님들은 만약 일『딸라』를 쓴다면 칠『센트』는박람회 회장안에서 소비하게되는셈으로 박람회 하나만 가지고 손님의 주머니로부터 십억『딸라』(약삼십오억원)나되는 막대한 금액을 홀터드린다는것은 엄청난 이야기지만 미국 서해안(西海岸)에서 방금 개최되고잇는 조그만『산프랜시스코』만국박람회에서도 약사억『딸라』나 수입을 예산하고 잇다고한다

一行百科辭典

▲노인의 귀는 말을크게허나적게허나 잘안들리기는 매일반그러니까 적어도 똑똑히할것

橋本七段・韓相龍 大棋戰

白의權謀奏効해서 前[二]四]黑軍이浮石化

觀◇戰◇記◇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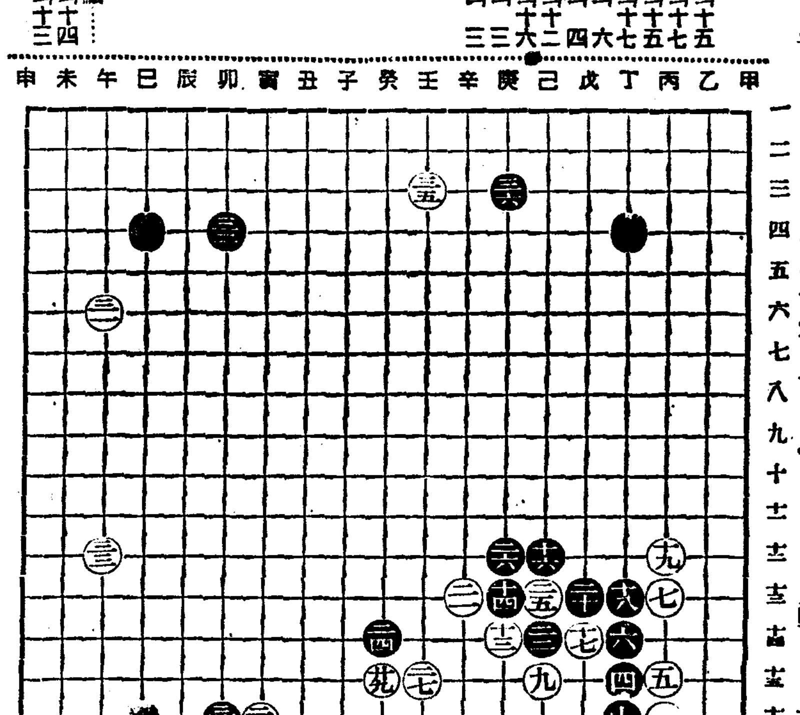
善法에兵不厭詐라하엿다. 白二七이 王의一七노 驅出하니 어는 무삼 曲折인가? 黑으로 대 黑棋을 中斷할드시 하고 前門虎을 警備한바 그 反面에 權謀의 術이 또 潛在한 듯, 그러나 黑二八은 丑의一七로 猪角之勢를 取한다. 이 議論을 따라서 白二九가 黑陣中部橫斷을 圖하엿고보니 魚腹의 大勢가 白이 좀 優越하다. 黑도到此하야는 三〇으로 寅의一七노 挑發하야 左右連絡을 안할수도 업다. 이點에대하야 徹底的解剖를 하여 본다면 아마 장내의 큰 影響이 번질듯 아무리 偏가 安全하다하여도 一片新月에敵將가 自在하거시요 中央은邊大한 黑棋가업마는지 風雲變化를 豫測할수잇다 이로보와 黑은在勢이라 黑이노릴수도잇서 白三一에 黑陣을放棄하고 恰然히 南角으로 向하야 午의六에接着하니 黑三二도例의手割로 卯의四에 往宮을構築하야 延長高里를꾀한듯 白은 마치누에가桑葉을蠶食하드시 丑의一三으로 斷切치 안코 午線一七로 連繫하니 이는 白의能한 手法이 自由自在라할까! 黑三四는 走馬加鞭이아닐는지 차라리 午의一四로 白棋를對峙하여스면 어떨가 白三五 『放込』은 果然魔手이다 東으로 西로 西로東하야 도바드면 西로 기가 장―이 거북하다 決局 黑三六의 庚의三으로 準備할도 그럴듯하나 現勢를 살펴보면 黑은外部에는 堅實味가 잇슨듯하나 四面受敵할 處險이 露骨化하니 장내의 難點이 더욱 注目된다

(4)

七段 橋本宇太郎 三子 韓相龍

○二七 王의十五
●二八 丑의十七
○二九 癸의十五
●三〇 寅의十七
○三一 午의十六
●三二 卯의十四
○三三 午의十二
●三四 卯의十六
○三五 壬의三
●三六 庚의三

猶點……
●三 己의十四
○三五 己의十三



夏節의常備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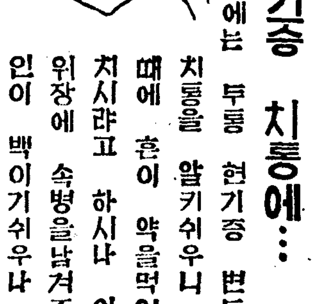
얇은곳에 발느면곳낫는

神經痛 류―마지스…

땀배오르는몸에 전맘어흐르도록 몰언고통을주는 신경통·류―마지스(통풍)의발작시에는 사로메치―루를 조곰 발느시고살살문질느시면 암마의物理작용과 强力한 藥物의滲透作用으로 병근원에작용하야 향기러운약냄새와함께 상쾌한기분이돌며 그렇게 심하든고통이 곧개입니다 더구나 약을발는후 끈적거리지않고 남보매에도흉치안습니다

두통 현기증 치통에…

더위가심한때에는 두통 현기증 변두머리 치통을 앓키쉬우니 이런때에 흔이 약을먹어서곳치시랴고 하시나 이것은 위장에 속병을남겨주거나 사로인이 백이기쉬우나 사로메치―루는 그런법이없고 곧낫읍니다



담결니는곳 쑤시는곳…

담결니시는때나 뻘내나 다드미질 바누질을 안저서하시다가 일어나실때 땡기고 쑤시며 절니는 근육류―마지스에는 잊지마시고本劑를 조곰발느시면 곧낫어편하시게됩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으로 어느가정에도 한개식 상비하여두시기 바라오니 갑작이발병하야 아품을참지못하는때 응급치료가되며 평지낙상 혹은 삔인곳에 또는 여름감기에걸녀 목이아플때 버룩 빈대 모기와약충에물닌데나 그에 방에 우수한 효과가잇으니 하절을무사히 지내시는데 큰 보호신이되는약입니다

다만피부에발느시면곧낫읍니다 아품이심할때는 발느신우에따뜻한수건을대이면 더욱좋으니濕布의代用이됩니다

サロメチール

사 로 메 지 ― 루

定價……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S-K-87